국민의당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 등 요구

국민의당 전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쌀값대폭락특별대책위원회'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와 우선 지급금 인상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쌀값대폭락특별대책위원회는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조배숙, 유성엽, 박준영, 윤영일, 정인화,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손금주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일 전주 농촌진흥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이맘 때보다 무려 20% 정도 대폭락하고 있어 이에 농민들의 마음이 시름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위는 "올해 예상 수확량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것과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우선 지급금을 산지 평균 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해외 공여 물량을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정부 수매 총 물량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 등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을 담은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사실 농민들은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거나 농사가 잘돼도 걱정이다.

올해는 대풍이 예고되고 있고 쌀 생산량도 4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쌀 생산량은 2012년 400만 톤을 저점으로 2013년 423만 톤, 2014년 424만 톤, 2015년 432만 톤 등 지난 3년간 매년 비슷한 생산량을 기록중이다. 또 재고량 역시 200만톤으로 역대 최고로 집계됐다.

올해는 작년 보다 더욱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반면에 20kg 쌀 도매가격은 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5~20% 가까이 폭락했다

오히려 쌀값은 30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의 정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전북, 남 지역 쌀 생산량은 157만톤이다. 이는 국내 쌀 51%에 해당한다. 그만큼 농민들의 쌀값안정 외침은 절실하다"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승리한 국민의당의 빠른 대응이 민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안내하고 환급해주는 운동으로, 환급대상은 입출식예금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이 2015년 12월31일 이전인 예금이며,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된 계좌 예금도 포함된다.

"농·축협에서 '잠자는 예금'을 찾으세요"

농협상호금융 11월말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농협 상호금융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와 휴면계좌 예금을 고객에게 찾아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내달 말까지 펼친다.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안내하고 환급해주는 운동으로, 환급대상은 입출식 예금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이 2015년 12월31일 이전인 예금이며,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된 계좌 예금도 포함된다.

고객이 직접 환급 대상 여부를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 또는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별도 지급제한이 없는 장기무거래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간편 해지도 가능하다.

전북농협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심을 담아 고객을 더 헤아리는 '농협 CS 3.0' 실천을 통해 고객만족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모집공고의 접수기간은 10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농업용 로봇 보급위한 수요처 선정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농업용 로봇의 보급확산을 위해 농업용 로봇 수요처를 선정 지원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수요농가 수요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농업용 로봇이 보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용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시장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할 농업용 로봇은 '농업용 방제드론' 및 'TMR사료 급이로봇'이다.

'농업용 방제드론'은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방제작업을 드론을 이용함으로써 농약 중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비행이 난해한 곳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방제가 가능하여 진입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섬유질사료 급이로봇'은 축산 농가의 가축에 섬유질 사료를 자율주행으로 자동 급이하고 사료를 정리해 주는 로봇으로 사료급이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사양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모집공고의 접수기간은 10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전북 농업용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고, 농업용 로봇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 국내 농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주시내 205명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 내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205명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전주 효성흑석, 효성신촌, 우아효성 3개단지가 대상이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입주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LH가 매입해 화장실, 주방, 도배장판 등 수선을 마치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으로 관리 중이다.

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www.lh.or)으로 가능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에서 접수한다.

또 인터넷의 경우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7만1,6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조건은 단지 및 평형에 따라 보증금은 680만원에서 1200만원대, 월임대료는 6만원에서 9만원대로 다양하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마다 5%내의 임대조건 인상률로 최장 30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063-230-6161) 및 주거복지사업2부(063-230-620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이스타항공 전주지역 독거노인 제주도 항공편 무료 지원

이스타항공이 전주지역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제주도 여행 항공편을 지원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스타항공은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지난 4일 '이스타항공과 함께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제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지역 거주 독거노인 중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신 어르신 23명과 여행 일정을 도와줄 18명의 봉사자를 포함해 총 41명이 이스타항공 청주-제주 왕복항공편으로 2박3일간 제주도 여행 나들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북의 대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365플러스, 지폭 줄여 20~30% 저렴한 화장지 개발

홈플러스의 편의점 브랜드 365플러스는 국내 처음으로 시중 제품보다 지폭을 줄여 '가성비'를 높인 화장지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면적만 상품화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펄프 사용량 절감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365플러스는 글로벌 최대 펄프 제지회사 Asia Pulp & Paper의 한국 파트너인 그랜드유니버설 코리아와 함께 6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걸쳐 지름 79mm의 '헬로 스마트 3겹 데코 화장지'를 개발했다. /뉴시스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센터장 박영자)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유망여성창업기업들을 위한 창업공간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창업2년미만의 여성창업인이거나 6개월이내에 창업을 예정중인 예비창업자면 가능하다.

박영자 전북센터장은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기업인에게 안정적인 멘토링 구성으로 창업초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많은 초기여성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입주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onbuk.wbiz.or.kr)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063-272-9973)으로 문의하면된다. /신광영기자